

현안과제연구

10.10.2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운영방안 연구

연구수행: 임준홍, 김양중, 송두범

<목 차>

1. 사회적기업 정책 동향	1
2.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2
1) 주요내용	2
2) 특징	4
3) 제언	5
3. 중간지원기관의 선진사례	6
1) 개요	6
2) 배경	6
3) 활동 개요	7
4) 비즈니스 구조	7
5) 네트워크	7
4. 전라북도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사례	9
1)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10
2)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기능	11
3)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조직	12
4)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형태	13
5.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14
1) 주요역할	14
2) 설립방안	15
3) 운영방안(비즈니스구조)	16
4) 주체들의 역할분담(중간지원기관 지원구조 만들기)	18
[참고문헌]	19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20

<연구요약>

- 충남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설립방안, 향후 운영방안 및 각 주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간지원기관은 자금조달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의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경리, 세무, 재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경영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중간지원기관의 설립방법은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지방정부인 충남도나 일선 시군에 두는 방법, 시민단체에 두는 방법,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원 등에 두는 방법 등 다양하나,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향후 충남도의 정책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 운영을 위해서 초기에는 행정의 위탁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기관을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세하고, 전문적 경영지식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아울러 중간지원기관이 재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 이를 위해 행정은 중간지원기관에 대해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 교육, 기초조사, 컨설팅 등의 기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민간 기업은 사업 및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대학은 연구설비나 우수인력 등을 제공하고 매스컴은 매스매체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해야한다. 홍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중간지원기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원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확대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과 CB사업자는 중간지원기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활용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CB사업자끼리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상호 우선구매 등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1. 사회적기업 정책 동향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본격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 노동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일자리 TF팀’을 구성하면서 부터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07)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08)하여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6.28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주요 고용정책으로 여러 후보자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제시함으로써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서울, 전북, 경북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으로 확대·다양화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사업 현황

사업명 (관련 부처)	관련부처 (추진연도)	주요 사업내용	특 징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노동부 (2007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 기업 인증제 도입 - 2010년 현재 268개 사회적 기업 인증, 각종 경영·재정·홍보사업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행정안전부 (2010년)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병행 추진	-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병행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농수산식품부 (2011년 예정)	- 노동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농촌조직 진출의 한계 극복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지역 공동체 조직지원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지역성과 수익성 강조)
기 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 지역혁신센터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춘 시범 사업(지식경제부) - 노동부와 MOU를 통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문화관광부)	- 지식경제부는 시범사업, 문화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MOU체결 통해 추진

2010년 7월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인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수는 355개이며, 이중 충남의 사회적기업은 6개(예비사회적기업 18개)에 불과할 정도로 양적으로 부족하고 실적 또한 저조하다. 지역적으로도 편중(천안, 공주, 아산, 연기, 금산 등)되어 있으며, 사업분야 역시 복지, 환경 등에 한정되어 있다. 기업규모도 영세(기업당 평균근로자수 15.8명)하고, 영업수익보다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나 충남도 모두 절대적인 기업체수와 역할이 미비하지만 선진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그리고 최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 비중과 역할, 활동 분야는 점점 커지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유럽 각국 사회적 기업의 성장

구분	영 국('06)	이탈리아('04)	프랑스('07)	폴란드('05)
기업수(개)	약 55,000	약 11,000	약 8,400	약 52,000
고용 (15세 이상 인구)	5.0%	5.2%	7.0%	4.6%
총 매출의 GDP 비중	2.0%	1.4%	-	-

* 자료 : 홍석빈(2009), p.46

2.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1) 주요내용

충남도는 민선5기 도지사 공약과 연계하여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충남형 사회적기업(충남도 조례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기업) 200개 육성’ 을 고용과 빈곤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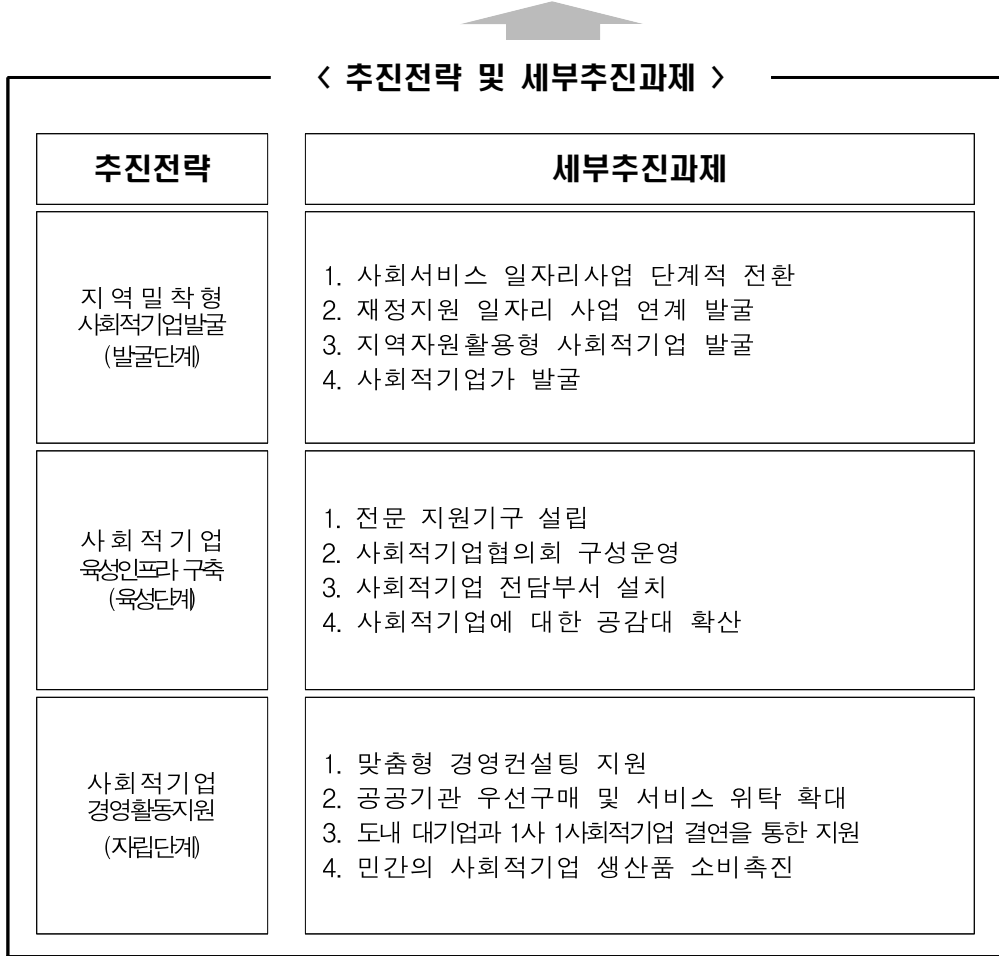
충남도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 절차 간소화, 지원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을 직접 수립 하였다.¹⁾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자립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충청남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2010) 참조

목표

충남형 사회적기업 200개 육성



<그림 1>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육성목표와 추진전략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기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벽이 너무 높고, 신규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 조건²⁾ 중 조직,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또는 규약 등 3가지로 간소화해 사회적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NGO, 비영리 단체 등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은 매년 2회(1월, 7월) 공모하고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육성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지정된 기업은 1년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 및 전문 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그 성과에 따라 심사를 통해 1년간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2)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은 ①조직형태, ②정관이나 규약, ③사회목적 실현, ④유급근로자 고용, ⑤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⑥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임(구체적 내용은 붙임자료 1참조)

<표 3>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주요 지원내용

구분		고용노동부 지원	충남형 사회적기업
인건비	일반직원	· 월 90만원/인 (100명)	· 월 63만원/인 (10명)
	전문인력	· 월 150만원/인(3명)	· 월 150만원(근로자 10명당 1명) ※ 기업당 최대 2명
시설비용자		· 2억원(연리2%)	· 최고 3천만원(연리 2%) ※ 무담보 신용보증 및 이자보전
사회보험료		· 4년 이내	· 2년 이내
경영컨설팅		· 컨설팅비용 지원 · 연 1천만원 (예비기업 3백만원)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인력pool활용 · 해당분야 전문가 직접시행
사업개발비		· 기업당 최대 7천만원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도비50%, 시군비 50%)
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 50%(4년)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50%감면(2년)
지원기간		· 재정 2년, 경영 3년	· 재정 1년, 경영 2년 ※ 심사를 통해 1년 연장가능

인건비의 경우 1인당 63만원씩 최대 10명까지, 전문인력의 경우 1명에 한해 최대 월 150만원이 각각 지원되며, 사업개발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경영컨설팅도 병행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저변확대를 위해 은퇴한 기업가, 자본가, 대학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수요 조사 후 사회적기업 창업과정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충남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등 참여의향을 조사해 올해 안에 기업의 대표와 도지사가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 MOU를 체결하고, 1사 1사회적기업 결연도 추진한다.

2) 특징

충남도에서 제시한 ‘충남형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책 수혜 대상이 도민 중심이라는 점, 정책의 수립과정과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지금까지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타 정책과 뚜렷이 차별된다.

첫째, 기존의 많은 지방정부 정책이 대규모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충남도민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도민친화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수립과정 측면에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와 충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행정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한 보완하고, 예산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계획의 실천력을 높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수립된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업의 발굴,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지정, 각종 지원방안,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표 4>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단계별 육성계획

(1단계) 초기단계	(2단계) 육성단계	(3단계) 자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모델 발굴 ○ 충남형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거버넌스 체계구축 ○ 지원체계 정비 ○ 사회적기업 인식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기반 확충지원 ○ 수익창출모델 확산 ○ 일자리, 서비스 선순환 구조 정착

특히,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첫걸음인 기업발굴에서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국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범 실국차원에서 협동하는 체계를 제안한 점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3)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지원에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차원에서 유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 역시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포함한 정책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큰 틀에서는 ‘충남형 사회적기업’ 정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모두 지역민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이를 통합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으로 확대하고, 그 틀 안에서 취약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시책과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책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에는 사회적기업 시책에 초점을 두고, 농산어촌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책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3. 중간지원기관의 선진사례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과 그 밖에 행정주도에서 추진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뚜렷이 구분될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구분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지역 활성화 요인 실태 조사_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조사(경제산업성, 평성20년)’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관한 조사 보고서(관동경제산업국, 평성21년) ‘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개요

영국은 Social Enterprise Coalition(SEC), Social Enterprise London(SEL)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SEC는 전국적인 중간지원기관으로 엄브렐라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SEL은 런던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며, 조사연구기능과 정책제언기능도 수행한다.

이탈리아는 Legacoop, Social Coin이 있다. Legacoop는 협동조합형태의 전국적 단체이다. Social Coin은 컨소시엄 형식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모여 형성된 단체이다.

미국은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oundation(REDF), Social Venture Network(SVN), Venture Philanthropy Partners(VPP), Ashoka 등이 있다. REDF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정량화(금전평가)하는 수법인 SROI(SocialReturn on Investment)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SVN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기업인 등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단체이며, VPP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며, Ashoka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유명 단체이다.

이들 기관의 규모는 대부분 10-20명 정도의 규모이고, 전 세계적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shoka가 가장 크며, 미국에만 50명 정도 된다.

2) 배경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영국은 협동조합이나 자선(기부)에 관한 긴 역사에 따라 SEL은 원래 협동조합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그 범위를 사회적기업 전체로 확대하였다. SEC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단체나 지원 조직을 연결하는 조직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이 발달하였고,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지역레벨, 정부레벨의 중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여러 재단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3) 활동 개요

SEL의 활동 특징은 홍보, 보급개발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CIC (커뮤니티 이익 회사)의 제도 도입도 추진하였다.

SEC는 정책제언, 조사연구사업 외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저널 발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Social Coin은 회원인 각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해서 다양한 영업활동이나 정부와의 중개역등을 담당하고 있다.

REDF는 사회적 약자의 실업해소를 향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SVN은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콘테스트나 다양한 교류이벤트를 개최하고, VPP는 어린이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자금 제공 및 컨설팅 활동 등을 실시하고, Ashoka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여성 사회적기업가 활동이나 사업전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비즈니스 구조

수입구조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SEC는 회비나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SEL은 런던 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다.

Legacoop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회원인 협동조합 회비로 유지되고, Social Coin은 각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은 이어나 개인, 재단 등으로부터의 기부를 받아 유지되는 구조이다.

이들 선진 사례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타입 1은 지원사업 외에 자체사업 등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주요 활동은 민간기업을 위한 사업의 전개(영상컨텐츠 제작 등) 등이다.

타입 2는 행정에게 위탁받은 지원사업을 통해 CB에게 교육,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주요 활동은 NGO 등을 위한 직업소개사업, 지역 인재의 매칭사업, 인재 육성 교육 등의 위탁사업과 기부나 보조금을 받거나 인재를 제삼자(외부)로부터 확보하여 인재부족 단체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다.

타입3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CB로부터 받는 구조이다. 하나의 CB에 대해 받기 보다는 여러 CB사업자의 네트워킹화된 관계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가 보다 일반적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개호보험 대상 외의 고령자 개호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네트워크화하고, 사업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서비스 대가를 받는다.

5) 네트워크

SEC는 전국의 약1만개의 사회적기업 등과 네트워크 되어 있으며, SEL은 지방정부 등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Legacoop는 사회적 협동조합만으로도 1700이상의 단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Social Coin은 24개 단체가 네트워크되어 있다.

SVN은 많은 유럽의 단체들과 네트워크 되어 있으며, Ashoka는 여러 기업과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표 5> 중간지원기관 선진사례 개요

	구분	특징	배경 등	활동개요
영국	Social Enterprise Coalition(SEC)	· 사회적기업 지원 추진 단체 ·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엠프렐러 조직	· 2002년 사회적기업에 관한 여러 조직형태의 단체를 결합하여 설립	· 사회적기업 홍보(사회적기업에 관한 마니페스트 작성지원 등) · 회원끼리 교류기회 마련 · 전문가와의 연대 추진 · 보급 개발 활동 · 조사 활동
	Social Enterprise London(SEL)	· 런던의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 · 고도의 연구기능	· 원래 협동조합 에이전시로 협동조합 지원에 초점되었지만, 런던위원회의 제안으로 1998년부터 다양한 단체를 지원	· 정부활동 정보 제공이나 이벤트의 개최 · 인재육성 · 사회적기업에 관한 저널 발행
이탈리아	legacoop	· 사회적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연합 조직	· 5개 협동조합의 대표	· 사회적협동조합의 감사, 이사 · 국가적 조직에 대한 프로모션 활동 대표
	Social Coin	· 사회적기업 조합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설립한 중간 지원 기관 · 영업창구기능	· 1988년 설립 · legacoop에 속함	· 공모 등을 통해 영업활동 전개(협동조합에 중개), 자체사업도 진행 · 은행이나 정부와의 중개 역할
미국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oundation(REDF)	·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는 중간지원 기관 · 주로 취업지원계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 1990년 설립된 Homeless Economic Development Fund가 모체, R&D부문이 독립하는 형태로 설립	· 사회적 약자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등 지원활동 실시
	Social Venture Network(SVN)	·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는 중간지원기관 ·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교류 조직	· 1987년에 설립 · 70명으로 시작	· 사회적기업 콘테스트 개최 · 전문가와의 의견교환
	Venture Philanthropy Partners(VPP)	·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중간지원기관 · 자금제공을 배경으로 한 컨설팅을 중시	· 2000년 설립	· 워싱턴 DC근교의 어린이교육 활동을 지원 · 매니지먼트 지원이나 자금 제공을 실시
	Ashoka	·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중간 지원 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 · 글로벌 지원활동 전개	· 1980년 설립 · Ashoka US는 2000년 설립	· 세계 사회적기업에 대해, 생활비, 서비스 지원 · 지원은 국가의 사정에 맞추어 구축

구분		수입구조	규모	네트워크
영국	Social Enterprise Coalition(SEC)	· 약 170만파운드(2007년 도) · 회원비, 정부 위탁수입	· 20-22명 스태프, 250명 회원과 46개 네트워크(2007년 11월)	· 네트워크에는 1만사의 사회적기업 포함 · 레저·문화·스포츠·건강 등 중심
	Social Enterprise London(SEL)	· 약 76만파운드(2005년 도) · 런던위원회 지원 등	· 14명 스태프와 2명 파트너임(2007년 11월)	· LDA, 런던위원회, 런던정부나 다른 단체와 협동
이탈리아	legacoop	· 정부 보조금 없음 · 독자적인 사업	-	· 1991년에 생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17000이상의 단체가 소속
	Social Coin	· 24개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컨소시엄(9000만유로)	· 참가 협동조합으로부터 일정기간 컨소시엄 인력 협조(1020명) · 대표와 메인 인력 4명	· 24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참가(2007년 11 월 시점)
미국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oundation(REDF)	· 2007년 예산 300만달러 · 3분의 2가 타재단, 개인 지원	-	-
	Social Venture Network(SVN)	-	· CEO 등 약 500명 회원	· BALLE 등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가 많음 · SVN유럽과 강한 협력 관계
	Venture Philanthropy Partners(VPP)	· 펀드 규모는 2007년에 3000만 달러·3명의 창설자나 자인 서포트	· 12명의 스태프(2007년 1 월)	· 지원단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다양한 지원조직이나 전문가 연결
	Ashoka	· 2005년 1500만 달러 · 60%가 개인, 나머지가 조직 자금 · 정부보조 없음 · 자금 제공원은 30%가 서유럽, 나머지는 미국	· 미국 50명, 그 외 30개국에 250명 스태프(2007년 1 월)	· 세계적인 기업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적인 지원이나 정보교환 등 실시

* 자료 : 經濟産業省「地域活性化要因実態調査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に関する調査)」 (平成20 年) 참조 재정리

4. 전라북도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사례

완주군은 고산면 삼기리에 그동안 폐교로 방치된 옛 삼기초등학교를 개조해 완주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재단법인 형태로 개소하였다. 지역경제순환센터는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한데 모아 결속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다.

지역경제순환센터는 농촌과 지역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회사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푸드, 도농순환, 공감문화 등 5개의 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2> 폐교를 리모델링한 커뮤니티 지원센터

① ‘마을회사 육성센터’

‘마을회사 육성센터’는 현재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마을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파워빌리지, 두레 농장 등 군(郡)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70여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주민 주도의 자립적 마을회사로 육성·지원하여 향후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회사 100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일명 ‘마을 호민관(好民官)’과 마을 닥터, 마을 협력단, 공동체회사 보육센터 등을 관리하거나 운영한다.

②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구도심재창조, 재래시장 활성화, 자원재활용 사업, 대안교육 모델개발, 공동체 일자리 등 농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모델을 발굴·지원하며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한다.

③ '로컬푸드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밥상연대를 총괄하는 곳으로 농민장터, 학교 밥상사업, 기관단체급식 등을 추진한다. 얼굴 있는 먹거리(농산물)를 생산해 기관·단체와 학교, 기업 등에 납품하는 건강밥상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완주군 농정의 핵심시책 중의 하나이다. 군은 이를 위해 완주 로컬푸드 영농법인 '건강한 밥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④ '도농순환센터'

도시와 농촌의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하는 '도농순환센터'는 귀농귀향과 도농교류사업을 맡는다. 도농순환센터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귀농·귀촌 인력을 유치하고, 공동체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농교류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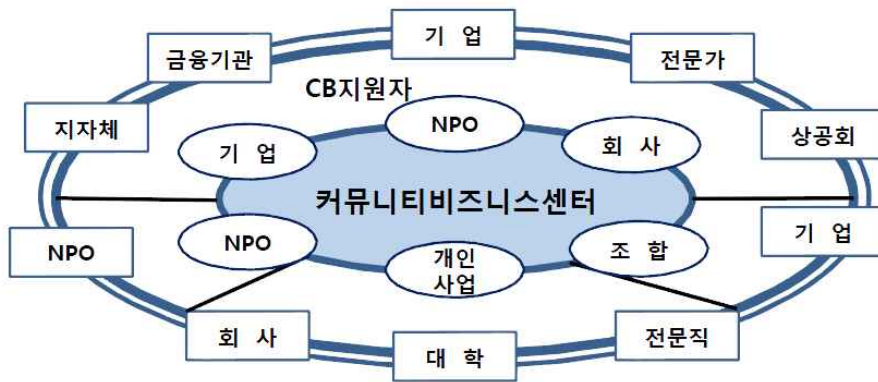
⑤ '공감문화센터'

'공감문화센터'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영화관람, 결혼식, 칠순잔치 등 문화 서비스 사업도 펼친다. 이밖에도 공감 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하고 사장되어 가는 농촌문화 자원을 발굴해 상품화하는 역할을 한다.

완주군은 지역경제 순환센터 개관에 이어 이들 민·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개편될 행정조직에 전국 최초로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순환센터와 같은 5개 담당계를 설치해 정책통합과 지원통합, 민관협력 등 행정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갖추 방침이다.

1)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중간지원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계·협력'이며 이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즉 지역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사람, 자연, 시설, 정보, 물건 등)'을 발굴하여 중간지원조직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다. 그 이외에도 사람들의 의견교환의장(플랫폼)형성, 필요한 곳에 기금을 지원, 매칭하는 기능,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모델링 기능, 인재의 육성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3>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네트워크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시민주체의 지역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한다.

2)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기능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주요 목표는 주체의 양성, 사업지원, 자원발굴 및 관리, 지역커뮤니티 지원이다.

주체의 양성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수행할 주체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인적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사업지원은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자원발굴 및 관리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자원발굴과 사업화 및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며 지역커뮤니티 지원은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지원, 보조하는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일명 자원순환 센터)는 인재육성, CB플랫폼, CB사업지원, CB조사연구, 커뮤니티지원, 정책 및 제도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6>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기능

구분	주요기능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대상/형태/내용/분야별 교육커리큘럼 제공 • 기존 학습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과정운영 • CB의 보급/계발/전문노하우의 제공
CB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 장소 및 비품대여, 사무실, 회의실, 정보송수신
CB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자금, 펀드, 융자 등) • 경영지원(상당, 컨설팅, 회계, 평가) • 네트워크지원(매칭, 업무제휴, 활동평가, 교류회)
CB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자원발굴 및 사업화 • CB모델구축 및 사례연구 • CB육성방안 연구
커뮤니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지역활성화 사업 지원 • 커뮤니티 기반강화사업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책 및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정책개발 및 기존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 각종 지원제도 개발

3)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조직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위탁’ 경영방식과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 하였으나 향후 조직 및 인원을 보강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기구’로 전환계획이다.



<그림 4>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조직

4)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형태

관주도의 경우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나 사업의 경직성과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순수 민간주도의 경우 사업의 유연성 확보와 사업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이 둘의 중간 형태인 민관협력형(위탁형)으로 민간재단을 설립 후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위탁운영되고 있다. 민관협력형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유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민관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민관협력의 성공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관주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	사업의 경직성 성과위주의 사업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민관협력형 (위탁형)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 사업의 유연성 확보 사업의 지속성 확보 가능	민관의 이해관계 충돌
민간주도	사업의 유연성 확보 사업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 가능	예산확보의 어려움

민간재단을 설립 후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위탁운영

<그림 5>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운영형태

5.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정부정책과 선진사례, 설문조사³⁾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설립방안, 향후 운영방안, 각 주체들의 역할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자료 참조)

1) 주요 역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충남도에도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7>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 필요성

구분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비중(%)	35.7	46.4	10.7	2.4	4.8

설립될 중간지원기관은 CB를 위한 지원사업과 일반 도민(시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CB를 위한 사업은 필요와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단발적 지원사업과 운영지원, 자금조달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업들은 사회적기업 초기단계에는 수요자와 후원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갖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발신, 교류촉진, 조사 및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중간지원기구(intermediary)

- 실제 소규모로 영업을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설립 희망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인가, 등기, 자금조달,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전문가를 동원하여 지원하는 주는 기관임
- 지역에 존재하는 행정(지자체), 기업, 상점, 금융기관, 커뮤니티비즈니스, 대학연구기관, 의료기관, 각 분야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을 한데 묶어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체제를 만들고 개별활동의 특징을 살리면서 여러 정보를 일원화하고 상호활동을 효율화시킴
- 지역사정에 따라 중간지원기구는 주민의 중심이 되는 경우, 행정이 중심이 되는 경우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는 기구 등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음.

3) 본 조사는 지난 9월17일(금)에 충청남도가 ‘충남형 사회적기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후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조사한 결과이다. 워크숍 대상자는 과거에 각종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중간지원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자금조달 지원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의 코디네이터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순위로는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경리, 세무, 재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경영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표 8>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

지원사업	주요내용	비중(%)	
		1순위	2순위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 소개·알선(허브 기능) 등	25.0	7.2
상담 창구	기업활동과 사회적기업 인증 등에 관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8.3	4.8
기업 지원	법인설립 지원(법인격 취득, 정관작성 등)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및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8.3	9.6
운영(경영) 지원	경리·세무·재무·회계·법률 등 지원(서류 작성 등) 홈 페이지 작성 지원 등	13.1	25.3
사업 전개 지원	영업 마케팅 지원, 경험에 근거한 경영노하우 지원 언론 홍보(PR 지원) 등	9.5	12.0
자금 조달 지원	설립·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부·보조금등 획득 지원 기업자금 융자·조성, 금융기관 소개 등	26.2	16.9
시설·비품 제공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지원 등	7.1	9.6
인재육성 지원	사업추진, 영업활동,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좌·교육 개최 등	1.2	4.8
정보 발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제품정보 제공 등	0.0	1.2
교류 촉진	사회적기업 관련자(행정, 기업, 주민, 기업가 등)와의 다양한 교류 촉진 소비자, 후원기업 등과의 교류 촉진	1.2	8.4
조사연구, 정책개발	사회적기업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평가·표창 등	0.0	0.0

* 조사항목은 선진사례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정리한 것임

2) 설립방안

중간지원기관의 설립방법은 지방정부인 충남도에 두거나 일선 시군에 두는 방법과 시민단체에 두는 방법,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나 연구원 등에 두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시군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어, 자기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설립형태

구분	비중(%)	
	1순위	2순위
충청남도	20.2	27.1
시군	57.1	20.0
충남도 산하 기관(충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등)	11.9	20.0
대학(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권 지원기관 등)	4.8	14.3
시민단체(사회적기업 관련)	6.0	17.1
기타	0.0	1.4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설립은 전술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현재 충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충청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새로운 설립이 필요 없고, 기존 기관에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간접 지원을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존 업무가 과중하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절차 등의 위탁업무에 집중되고, 교수와 연구원들의 제한적 활용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둘째와 셋째는 충남만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다.

둘째는 충남도 산하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충남여성개발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 기관내에 별도조직(예, 센터 운영) 운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기관을 활용할 경우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복지, 농산어촌 및 지역개발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성을 확보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의욕,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와 연계할 수 있는 각종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전문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기존 시민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활동(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한 후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을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경우 선정된 시민단체를 향후 중간지원기관 형태의 CB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충남지역 내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고, 자체적인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상의 여러 방안 중 충남도는 전술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 향후 충남도의 정책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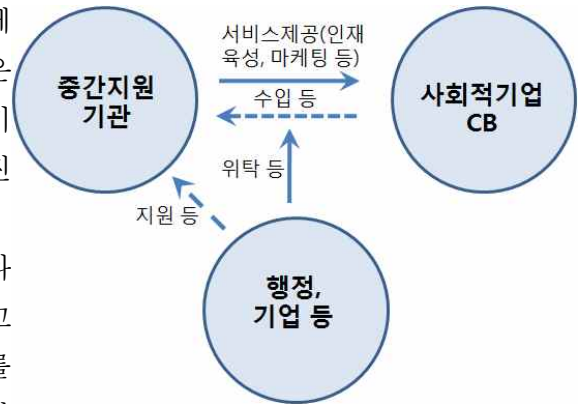
3) 운영방안(비즈니스구조)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은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행정의 위탁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조에서 출발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지원기관을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간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행정의 위탁기능과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및 CB 정책과 연계하여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예, 사회적개발비)를

중간지원기관에 배정하여 홍보, 교육, 경영컨설팅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해당 개별 사회적기업은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지원 기관에서 중점적·효과적으로 추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프로보노 운동과 연계하고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과 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의 특성과 해당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따라 폭넓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림 6> 중간지원기관의 비즈니스 구조

<표 10> 네트워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기관(예)

1. 행정	2. 금융기관	3. NGO	4. 조성 재단 등 자금 중개 기관
5. 보도 기관(신문사, 텔레비전 등)	6. 중소기업 진단사		
7. 공인회계사	8. 세무사	9. 변호사	
10. 중소기업 지원기관	11. 상공회의소	12. 대학 등의 교육기관	
13. 사회복지협의회	14. 자치회·마을조직	15. CB 사업자	
16. 지역 전문가(코디네이터)	17. 지역주민 등		

특히, 초기단계에 있는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상담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회적기업 대상기업들은 영세하고, 전문적 경영지식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 높이에 맞는 상세 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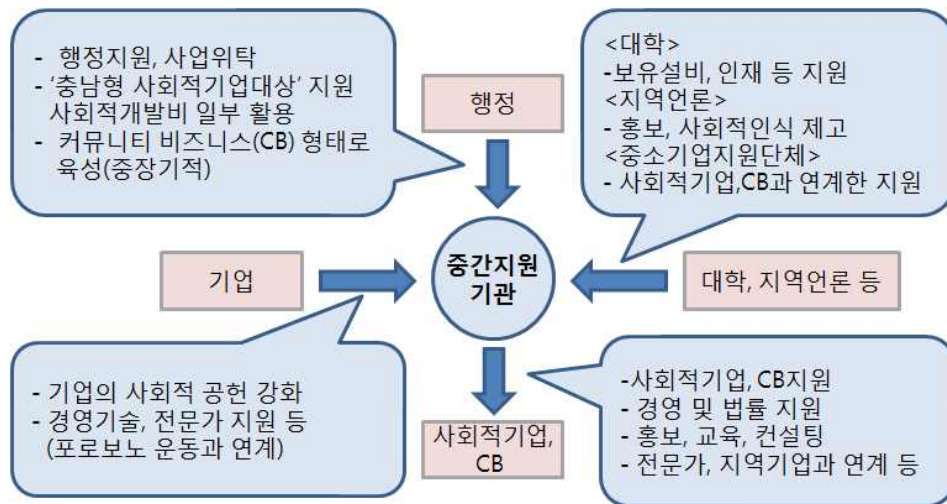
<표 11> 상담이 필요한 주요 분야(예)

1. 조직구성(법인설립 등) 관련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3. 경리·세무·재무·회계·법률 등 관련	4. 자금(사업비 등) 조달 방법 관련
5. 전문인력 확보·육성 관련	6. 조직내부의 매니지먼트 관련
7. 네트워크 형성관련(홍보, 타조직과 연계 등)	8. 시장조사·관로개척, 마케팅 관련

그리고 ‘충남형 사회적기업’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기관 역시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간지원기관이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가교와 리더 역할을 하도록 중간 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주체들의 역할분담(중간지원기관 지원구조 만들기)

중간지원기관이 재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은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지방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즉, 사회적기업 관련 홍보, 교육, 기초조사, 컨설팅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의 안전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림 7>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회구조 만들기 구상(예)

둘째, 기업은 사업 및 경영 노하우를 지닌 인재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경영능력을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자이며, 사회적기업의 스폰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이나 매스컴 등은 각각의 특징을 살린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은 연구설비나 인력 등에 의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매스컴은 매스매체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중간지원기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원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확대·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체적인 것은 중간지원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기업과 CB사업자는 우선 중간지원기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활용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CB사업자끼리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상호 우선구매 등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충청남도, 2010.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충청남도

이용재·임준홍, 2009.12,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2009.6,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충남리포트 제19호

홍석빈, 2009.5.6,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노동부, 2008.1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지경배, 2010.9,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정책브리프 제80호, 강원발전연구원, p.9

關東經濟産業局, 平成 2 1 年 3 月,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間支援機關のビジネスモデルに関する調査報告書

經濟産業省, 平成20 年, 「地域活性化要因實態調査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に関する調査)」

(붙임자료)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지난 9월17일(금)에 충청남도가 ‘충남형 사회적기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후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조사한 결과이다. 워크숍 대상자는 과거에 각종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2. 설문응답자 및 업체 특성

1) 설문응답자 속성

- 설문응답자는 남성이 64.6%,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회사내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사무직과 대표가 많다. 그리고 회사는 최근 5년 이내에 설립한 경우가 69.7%이다.

<표 1> 설문응답자 속성

구 분		비중(%)	구 분		비중(%)
성 별	남성	64.6	담당업무	대표	28.9
	여성	35.4		임원	19.6
연 령	30대이하	32.0		사무직	37.1
	40대	38.1		생산직	2.1
	50대	20.6		기타	12.4
	60대이상	9.3	설립연도	2005년이전	30.3
대표자 연 령	30대이하	8.6		2005-2008년	45.4
	40대	31.2		2009년이후	24.3
	50대	40.9	회사위치	시급도시	51.5
	60대이상	19.4		군급도시	47.4

* 총 설문응답자는 97명이지만 각 항목별 설문응답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 설문응답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71.1%가 매우 많다고 답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60.8%가 알고 있고,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경험한 사람도 36.1%이지만 현재 충청권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36.1%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표 2>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및 인지 정도

사회적기업 관심 정도	비중(%)	사회적기업 인지정도	비중(%)	중간지원기관 인지여부	비중(%)
매우 많다	71.1	잘 알고 있다	16.5	알고 있다	36.1
많다	23.7	알고 있다	44.3	모른다	63.9
보통	3.1	보통	32.0	교육 경험 여부	비중(%)
없다	2.1	모른다	6.2	있다	36.1
전혀 없다	0.0	전혀 모른다	1.0	없다	56.7

2) 기업체 특징

- 설문응답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정기준을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형태는 비영리단체와 민법상의 법인이나 조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88.9%가 정관이나 규약을 갖고 있었으며, 총회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 1개 업체당 근로자수는 평균 19.2명이며, 58.7%이 업체들이 취약계층을 한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근로자 중 72.3%의 사람들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처는 일반 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75.8%로 가장 많으며, 매출액은 평균 1.9억원 정도, 업체당 1년간 평균 매출액은 6억원 정도이며,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4%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의 수입의 일부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고 있는 업체가 68.8%이며, 향후 수익이 증가할 경우 98.7%의 대부분의 업체는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분석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과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대상 기업체의 특징

기업체 여건	세부 내용	측정치
조직의 형태(%)	① 민법상 법인·조합	23.0
	② 상법상 회사	12.6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7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7.6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4.9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1.1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5.7
	⑧ 기타	9.2
정관, 규약 유무(%)	① 있다	88.9
	② 없다	11.1
의사결정 구조(%)	① 총회	18.4
	② 주주총회	2.3
	③ 이사회	33.3
	④ 운영위원회 / 운영협의회	40.2
	⑤ 없다	5.7
근로자 특성	①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명)	19.2
	②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58.7
	③ 총근로자 중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자 비율(%)	72.3
귀 상품(서비스)의 판매처(%)	① 정부(국가, 자치단체)	12.9
	② 타 관련 업체	11.3
	③ 시장(소비자)에 판매	75.8
자산 및 매출액 등	① 업체당 평균자산(억원)	1.9
	② 업체당 1년간 평균 매출액(천만원)	60.3
	③ 총수입 중 인건비 비중(%)	58.4
사회적 목적 재투자(%)	① 현재 수입 중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비율(%)	68.8
	② 향후 수입 중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의향(%)	98.7

3.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평가와 요구

- 다음에 제시된 충남형 사회적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49.5%의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불만족하는 사람은 6.5%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중(%)	10.8	38.7	44.1	5.4	1.1

-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에 대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와 약화되어도 되는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다.
-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지원분야에 대한 1순위로는 일반 인건비 지원과 시설용자비용, 사업개발비, 2순위에서는 시설비용자, 개발사업비, 전문인력지원을 지적하였으며, 약화되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와 2순위 모두 세제지원, 경영컨설팅이라고 답하고 있다.
- 이는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는 반면,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주요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지원내용	정책 강화분야		정책 약화분야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인건비	① 일반직원	· 월 63만원/인 (10명)	42.4	8.2	3.5	2.0
	② 전문인력	· 월 150만원(근로자 10명당 1명) ※ 기업당 최대 2명	10.6	21.2	7.0	7.8
③ 시설비용자		· 최고 3천만원(연리 2%) ※ 무담보 신용보증 및 이자보전	20.0	24.7	17.5	9.8
④ 사회보험료		· 2년 이내	1.2	1.2	15.8	17.6
⑤ 경영컨설팅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인력pool활용 · 해당분야 전문가 직접시행	7.1	10.6	17.5	15.7
⑥ 사업개발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도비50%, 시군비 50%)	11.8	20.0	7.0	9.8
⑦ 세제지원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50%감면(2년)	0.0	4.7	24.6	29.4
⑧ 지원기간		· 재정 1년, 경영 2년 ※ 심사를 통해 1년 연장가능	7.1	9.4	7.0	7.8

- 한편,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는 시설 투자 등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달라,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달라, 초기사업계획서 작성 시 다양한 정보와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지원해 달라, 비조직화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지원해달라, 개인사업자도 지원해달라, 공식적인 정보나 컨설팅외에 비공식적인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 개발사업비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달라, 국공유지를 활용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판촉홍보등을 지원해달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해하라(위탁구매 등), 일반개인사업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주민 들 지역사회 구성원 의식변화도 필요하하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94.3%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청시기는 올해 하겠다는 응답이 61.8%, 나머지는 모두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책 참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1순위와 2순위 모두 충남도와 시군, 기업스스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특히 시군이 큰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

구분	비중(%)	
	1순위	2순위
국가	12.5	4.9
충남도	30.7	18.5
시군	23.9	38.3
중간지원기관	2.3	9.9
해당기업 스스로	22.7	14.8
시민단체	3.4	2.5
대학	0.0	1.2
시민(주민)	1.1	3.7
지역내 기업들	3.4	6.2

- 시군이 주로 해야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시군차원에 전담인력 및 부서를 운영, 조례제정,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우선구매와 판로개척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표 7>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을 위한 시군의 역할

구분	비중(%)	
	1순위	2순위
시군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38.6	5.7
시군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6.8	16.1
시군의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	19.3	12.6
시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자체적 공모사업 추진	5.7	11.5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17.0	19.5
사회적기업과 지역후원업체 및 소비자와의 연결(판로개척, 후원)	5.7	21.8
충남도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의 적극적인 연결(홍보)	6.8	12.6

- 한편, 그 밖에 시군에 바라는 내용으로는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국공유지 등)을 저가 및 무료로 임대하여 지원, 마을공동체의 성격사 조직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직구

성 등 초기단계부터 관심과 지원, 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 자치단체장 및 시군 담당자의 이해와 역량강화, 시군차원의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시민의 의식강화에 노력, 현장중심이 행정지원, 정책의 지속성,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증후의 지속적인 지원, 제시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 현재 국가자원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지역별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8>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 필요성

구분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비중(%)	35.7	46.4	10.7	2.4	4.8

-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형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원하있어, 자기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설립형태

구분	비중(%)	
	1순위	2순위
충청남도	20.2	27.1
시군	57.1	20.0
충남도 산하 기관(충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등)	11.9	20.0
대학(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청권 지원기관 등)	4.8	14.3
시민단체(사회적기업 관련)	6.0	17.1
기타	0.0	1.4

- 중간지원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지원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의 코디네이터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순위로는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경리, 세무, 재무, 회계, 법률 등의 전문경영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표 10>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

지원사업	주요내용	비중(%)	
		1순위	2순위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 소개·알선(허브 기능) 등	25.0	7.2
상담 창구	기업활동과 사회적기업 인증 등에 관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8.3	4.8
기업 지원	법인설립 지원(법인격 취득, 정관작성 등)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및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8.3	9.6
운영(경영) 지원	경리·세무·재무·회계·법률 등 지원(서류 작성 등) 홈 페이지 작성 지원 등	13.1	25.3
사업 전개 지원	영업 마케팅 지원, 경험에 근거한 경영노하우 지원 언론 홍보(PR 지원) 등	9.5	12.0
자금 조달 지원	설립·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부·보조금등 획득 지원 기업자금 융자·조성, 금융기관 소개 등	26.2	16.9
시설·비품 제공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지원 등	7.1	9.6
인재육성 지원	사업추진, 영업활동,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좌·교육 개최 등	1.2	4.8
정보 발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제품정보 제공 등	0.0	1.2
교류 촉진	사회적기업 관련자(행정, 기업, 주민, 기업가 등)와의 다양한 교류 촉진 소비자, 후원기업 등과의 교류 촉진	1.2	8.4
조사연구, 정책개발	사회적기업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평가·표창 등	0.0	0.0